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교우 : 윤형대 성도(키르기스스탄 목장, 박성근 집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5/1) 청소담당은 우즈베키스탄 목장(유종열 장로)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5/2) 주일간식담당은 로템 목장(정진숙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교회 정문 옆, '하늘문의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6. 교우동정 : 박상우 집사님이 내과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4월 25일	5월 2일	5월 9일	5월 16일
예배기도(2부)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헝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1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갈이
*경배찬송	다갈이
*참회기도	다갈이
*신앙고백	다갈이

찬양과 기도

찬송	269장(통 211장)	다갈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이현호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렘 12:1-5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이해할수없는고난’	김묘상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결 단 송 .....	357장(통 397장) .....	다 갈 이
*축 도 .....	김 묘 상 목 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53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0:11-17 ‘하나님의 사랑’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44)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믿음 이야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 중 하나입니다. 믿음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야기를 꺼내드립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 죄다 옛날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산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믿음이란, 자신의 욕구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설계한 미래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것을 바라고 순종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라든지 후손은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두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셨던 선물이며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모든 생명을 위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의 약속 또한 믿었습니다. 약속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에 그분의 약속을 바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자식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일이었겠지요.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웃고,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당사자들조차도 의심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아들은 그들에게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란 의심의 상황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기에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심하던 사라에게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 여정의 한 과정이며,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때로 의심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런 존재와 함께 믿음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믿음의 이야기로 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